

성경 그리고 토마스 아퀴나스의 『그리스도를 본받아』 묵상(133)(2/24/2022)

제 3 권 내적 위로

제 25 장 마음의 견고한 평화와 참된 영적 진보는 어디에 있는가, 1-3 절

요 14:27 -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골 3:15 -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1. <그리스도> 아들이야, 나는 이렇게 말했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요 14:27). 모든 사람이 평화를 원하지만, 참된 평화를 얻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여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다. 나의 평화는 마음이 겸손하고 온유한 사람과 함께 하기 때문에, 많이 인내하는 것 속에 평화가 있다. 내 음성을 듣고 따르는 사람은 큰 평화를 누릴 수 있다.

2. <제자> 그렇다면, 주님, 내가 어떻게 하여야 합니까?

3. <그리스도> 네가 무슨 일을 행하고 무슨 말을 하든지, 모든 일에서 네 자신을 살피서, 과연 너의 목적과 의도가 오직 나만을 기쁘게 하는 데 있고, 네가 나와 상관없는 것은 그 어떤 것도 원하지도 않고 구하지도 않고 있는지를 확인하라. 반면에, 다른 사람들의 말이나 행위와 관련된 모든 것에 대해서는 선불리 아무것도 판단하지 말고, 네게 맡겨지지 않은 일들에는 휘말려들지 말라. 그렇게만 한다면, 네 마음이 흐트러지는 일은 거의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

말씀과 해설:

성삼위일체 하나님은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는 분이시다. 주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을 약속하셨고 허락하셨다. 아퀴나스는 모든 사람이 평화 혹은 평안을 원하지만 어떻게 그 평안을 얻을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다고 잘 지적했다. 우리가 얼마전에도 나누었던, 우리가 평안을 누리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이 평안을 주시지 않아서가 아니라, 나 자신이 가지고 있는 문제들 때문이다. 우리가 평안을 누리지 못하는 이유는,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내 생각과 고집에 집착함, 나의 죄악과 욕심과 주님께 대한 불신의 문제, 더 나아가 삶의 문제 속에 주님은 바라보지 못하고 그 문제만을 바라보기 때문이다.

성경은 우리가 평안을 간절히 원하면서도 누리지 못하는 또 다른 이유들을 알게 한다. **(1) 평안을 약속하신 예수님의 성품에 대한 깊은 묵상은 우리에게 평안을 누릴 수 있는 내면적 이유를 발견하게 된다.** 평안을 주시는 예수님은 온유하시고 겸손한 성품을 가지셨다. **마 11:29 -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우리가 쉼을 얻기 위해서는 우리의 짐을 가지고 주님께 나아가야 하며 주님의 멍에를 메고 주님께 배우는 것이다. 우리가 주님께 배워야 하는 것은 주님의 복음의 진리와 말씀과 함께 주님의 온유하고 겸손한 성품이다. 평안을 주시는 주님은 자신이 평안 가운데 거하신다.

그리스도의 평안은 자신의 온유하고 겸손한 성품과 함께 하는 것임을 깨달을 수 있다. 완악하고 거칠고 화를 잘 내고 교만한 품성은 평안을 깨뜨리며 평안이 자리하지 못하게 하는 가장 큰 이유 중의 하나이다.

(2) 어떤 일의 목적과 동기 역시 평안과 관련이 있다. 악한 계획과 생각을 가지고 평안할 수 있을까? 남을 해롭게 하는 일을 꾸미고, 거짓된 소문을 유포하고 모함하면서 평안할 수 있을까? 사 48:22 -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악인에게는 평강이 없다 하셨느니라.

(3) 감사하지 않는 사람에게는 평안이 없다. 골 3:15 -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감사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관심에 감사하는 것이다. 감사하는 사람은 마음에 평안이 깃든다.

(4) 감사하는 사람은 자족하는 사람이며, 자족하는 사람에게 평안이 임한다. 빌 4:10-13 - 10. 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함은 너희가 나를 생각하던 것이 이제 다시 싹이 남이니 너희가 또한 이를 위하여 생각은 하였으나 기회가 없었느니라 11. 내가 궁핍하므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12.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13.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어떤 상황에 있든지 스스로 만족하는 사람은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굳게 믿고 의지하는 사람이다. 그러므로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고 고백을 하는 것이다. 진정한 감사와 자족은 주님을 향한 깊은 신뢰에서 오며, 그 신뢰는 평안의 가장 큰 이유 중의 하나이다.

함께 나눌 기도 제목.

1. 예수 그리스도께서 약속하신 진정한 평안을 누릴 수 있는 우리의 믿음, 영성, 그리고 내면이 되게 하옵소서.
2. 전쟁의 공포 속에 있는 우크라이나를 비롯해서 고통과 절망을 경험하는 이 세상 곳곳을 불쌍히 여기시고 주님의 온전한 치유와 회복을 허락하옵소서.
3. 우리 교회의 다음 세대들이 말씀과 성령의 은혜 가운데 잘 자라나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믿음의 일꾼들이 되게 하옵소서.
4. 오늘 하루의 삶이 주님께 합당하게 하시고, 우리의 입술의 모든 말과 마음의 묵상이 주님 앞에 열납되게 하옵소서(시 19:14).